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8월 25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 에너지신사업팀장 김일웅 ☎440-4301 • 담당자 원나리 ☎440-430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대상 선정

- 수소생산기반 구축, 수소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한 수소산업 혁신 선도 -
 -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활성화 노력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이 2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내용을 보완해 총 사업비를 당초 2,525억 원에서 2,403억 원(국비 1,172억 원, 시비 537억 원, 민간 694억 원)으로 절감했고, 그 결과 이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신속하고 대규모로 수도권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SK 부생수소 3만 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의 노후 산업을 수소 중심의 전후방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수소 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혁신을 지원할 산·학·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앵커기업 및 연관기업 유치, 신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근 수소 산업의 발전된 성과를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에 추가 반영하고, 수소산업 혁신을 지원할 각종 수소 연구시설과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서구에 수소생산클러스터를 조성해 청라를 수소 선도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청라 수소 산업은 송도 바이오, 영종 MRO 산업과 함께 인천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서 이러한 산업들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원도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국가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서구청, SK E&S, 현대자동차와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전략’을 수립하는 등 수소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붙임> 2030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모델

행복한 시민 · 깨끗한 환경 · 신성장 산업이 조화로운 수소도시 인천

